



나누면 살고 희망은 솟는다

김홍식 장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이사장)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 위축되기는 했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용기는 힘을 합치기 시작하고 있다. 사랑은 절망 속에서 더 간절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더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 사랑을 모으고 있다.

초등학교 때의 경험이 생각난다. 세검정(현, 평창동)은 지금은 부촌이 되었으나 내가 자랄 때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살던 가난한 곳이었다. 가난한 동네였지만 나무가 많았고 삼각산을 끼고 있던 아름다워 포근한 마음을 주는 곳이었다. 우리 집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으나 경제적 사정이 훨씬 더 어려웠던 친구들이 많았다.

친구들과 이웃돕기 운동을 하기로 하고 돈을 모으기로 하였다. 궁리 끝에 신문 배달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용돈을 모으는 친구도 있었으나, 나는 아이스크림 장사를 시도하였다. 아이스크림 도매상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잘 팔면 돈이 꽤 남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시도는 곧 실패로 끝났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는 사람도 많지 않았거니와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좋지 않은 냉동고 안의 아이스크림이 녹아 내리는 바람에 친구들끼리 나누어 먹고 겨우 본전을 건지기도 힘들었다.

낙담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아이디어를 주셨다. 우리 집은 삼각산과 유원지로 올라가는 길가에 있었고, 집 앞에는 맑은 물이 나오는 웅달샘이 있었고, 넓은 마당에는 옥잠화, 채송화, 봉숭아 등 화초들이 많이 있었다. 어머니는 화초 한 포기씩 신문지에 싸서 길가에 진열해 놓으면 등산을 갔다가 시내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라고 하셨다. 우선 밑천이 안 들고 녹아 내릴 염려가 없는 물건이니 마음이 편했다. 정성껏 화초를 싸서 진열해 놓고, 여동생에게는 웅달샘에서 물을 떠먹을 수 있는 조롱박을 들고 등산객들이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도와라고 부탁했다. 여름방학 동안 산과 유원지를 다녀가는 많은 사람들이 웅달샘에서 목을 축이고 화초를 가져가면서 돈을 주고 갔다. 한여름 내내 모은 것을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성금으로 내놓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때의 그 작은 경험이 나에게 큰 여운으로 남아 있다. 어려울 때도 나눌 수 있다는 것과 세상 살아가는 어머니의 지혜와 희망을 체험했다.

우리 몸에도 나누는 지혜가 심겨져 있다. 인체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병균에 감염되어 온몸이 쇼크에 빠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혈액이 모자라는 상태가 된다. 이때 온몸의 장기가 혈액을 골고루 공급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위험해 빠진다. 그러면 몸에서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장기로 피를 공급한다. 예로 뇌, 심장, 폐로 우선적으로 혈액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더 버틸 수 있는 신장, 팔다리 쪽으로는 혈액 공급을 줄인다. 우선적인 대우를 못 받는 장기들이 쇼크에서 벗어날 때까지 잘 버티면 다 같이 사는 것이고 아니면 모든 장기가 소멸하게 된다.

우리 몸에 쇼크에서 벗어나는 지혜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닌 것 같다.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보혈을 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누면 살고 희망은 솟는다!



아프리카미래재단 사역탐방 7

잠비아

함께하는 AFF 가족
허일봉&전미령 선교사

제라국제보건대학 소식

아프리카미래재단 USA가 후원하고 있는 잠비아 제라 보건대학의 강의동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라보건대학의 강의동 공사는 30m×12m 바닥에 10m×10m 교실 3칸과 2m×30m 베란다 공사인데, 이 모든 공사의 완공은 2022년 2월로 예정하고 있다.

아프리카미래재단 USA가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5월 1차로 5만 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이에 힘입어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7월 14일 현재 건축은 그동안 땅 정리 작업, 기초 바닥 공사 - 철근, 콘크리트, 철근 Beam Structure 세움, 지붕공사 끝남 - 단열재 씌운 후 양철 지붕 올림, 벽돌 쌓는 중인데, 약 30% 공사가 끝났다. 이러한 공사는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를 주관하고 있는 이 일을 총괄하고 있는 허 선교사가 치과 마지막 치료를 받고자 8월초 ~10월 말(3개월)까지 한국을 다녀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건축의 남은 공정은 문틀과 창문틀 설치 작업, 전체 벽면 미장, 문과 창문 유리창 끼움, 바닥 공사 마무리- 테라조 공사, 교실 베란다 마무리 공사, 벽면 페인트 칠, 전기 공사와 수도 공사, 내부 필요한 가구들 비치하는 일을 남겨두고 있다.

사업 배경

한편 이 공사는 잠비아의 보건과 교육환경의 변화로 제라국제보건대학을 통한 양질의 교육을 시행하고자 국가 의료서비스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잠비아는 3년 과정의 단기 기초의학 교육을 통해 clinical officer 제도를 운영하는데, 정직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를 대신하는 진료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라 국제보건대학은 임상학과를 통해 clinical officer를 양성하려는 것이다. 잠비아는 Enrolled Nurse(2년제)는 약 만 명의 간호인력이 있는데, 이 제도가 2023년에 폐지되기 때문에 RN과정 2년을 추가로 이수하여 정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제라 국제보건대학은 2021년 1월 15일 이를 운영하는 Holy Seed Stump Mission 이사장 허일봉 지부장과 아프리카미래재단 박상은 대표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2월에 개교하였는데, 1학기에 등록된 학생은 간호학과 7명, 임상학과 3명 등 모두 10명이 등록해 공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강의동 건축이 절실한 실정이라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그 제안서를 보내와 지난 3월 6일 이사회에서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잠비아는 면적이 7,526만 1ha로 세계 37위로 대한민국의 7.5배 크기이고, 2018년 기준 GDP가 269억 달러로 세계 101위 국가이다.



잠비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

1. 치소모 병원과 제라 대학, 카젬바 유치원과 진료소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주님 깨만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도록.
2. 현재 제라보건대학은 7월 학기 학생 모집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함으로 기독의료인들로 잘 훈련되도록.
3. 현재 진행 중인 강의동 건물이 무사히 잘 완공되어서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공부 할 수 있도록.
4. 허 선교사 부부가 3개월 동안 치과 치료(현재 어금니 없이 송곳니로 음식을 먹는 상황임.)를 잘 받도록.
한국 방문 예정(8. 2.~10. 31)인데 한국에서 머물러야 할 장소가 잘 마련되고, 치료도 잘 받도록.
5. 3개월 동안 저희 부부가 없어도 주님께서 친히 병원과 대학을 운영되도록,
치소모 병원과 제라 대학의 전 직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하도록.
6. 앞으로 계속 지어져야 할 건물들이 순조롭게 모든 경비가 마련되어 대학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도록.

앞으로 필요한 것들

- 강당, 기숙사 : 48명의 학생이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 4동, 식당과 부엌, 화장실 블록, 학생회 사무실 및 휴식공간, 도서관, 스마트 교실을 위한 인터넷 시설과 장비, 컴퓨터 30대, 교실에 필요한 가구들-책상과 의자 및 칠판(화이트 보드), 개인 사물함 등, 기숙사에 들어갈 2층 침대와 가구들(약 200명의 학생들을 위한 것)
- 학생들이 국립병원으로 실습 나갈 때 필요한 대형 버스 2대
- 전기가 나갔을 때 대응할 시설- Solar system/Generator, 학생들이 부모 중 한 분이 안 계시거나 두 분 다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 놓고 공부하도록 장학금이 마련되어 3년 과정의 학업을 무사히 마치도록.



선교사 통신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교 소식 김경환, 송선아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의 기도와 격려와 후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집안에 무장강도가 침입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약간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도 되찾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살던 곳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으로 거처도 옮겼습니다. 트라우마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남아공 현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부패에 연루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남아공 북쪽 콰줄루 나탈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폐쇄하고, 트럭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고,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체포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군대를 투입하여 소요를 진압했으나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소요와 약탈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반구에 있는 남아공화국은 지금 겨울입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통행도 금지하고, 모임도 금지하고, 학교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섬기던 일들도 3주째 멈추었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줄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율이 30퍼센트를 웃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임이 가능해지면 신학교 사역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올 연말 50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신학교 졸업이 1년 늦춰졌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어 학생들 모두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해 저희들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교 소식 이원준, 유해숙 선교사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에게

저희 부부가 코비드19로 어려울 때, 같은 형제 자매 마음으로 기도로 헌금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한국 선교사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월 6일 퇴원했습니다. 남양주에 숙소를 옮기고 이곳에서 혼자 한달 지내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달 넘는 동안 침대에서만 지내 잘 걷지도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남양주 숙소를 1달만 준비 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호흡 훈련과 걷는 연습도 하고 한달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계단이 있는 다음 숙소인 선교관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원준 목사의 담당의사와 8월 6일 처음 면담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원준 선교사 면회가 안되니까 담당의사 말에 의하면 지금은 가수면 상태에서 깨어나 눈을 맞추고, 듣고 할 수 있다 합니다. 목에 인공 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고, 살이 너무 빠졌고 근육이 빠져 손에 힘이 없어 아직 글을 쓰거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 합니다. 폐는 처음 한국에 들어 왔을 때 보다 조금 회복이 되었고 세균들과 합병증이 생기기전 빠른 시일 안에 자가 호흡을 하고 인공 호흡기를 떼는 것이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 합니다.

이원준 선교사가 인공 호흡기를 의지한 게 7월14일부터 26일 동안입니다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을지 60대 70대는 자가 호흡에 실패하여 평생 인공 호흡기를 의지 하고 사는데 50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여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여 열심히 기도 하고 있습니다. 폐 이식 까지 가지 않도록 이원준 선교사가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될지, 퇴원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원준 선교사가 자가 호흡에 성공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교 소식

김재수, 김순희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마 직전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임기 6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자신이 속한 여당에 의해서 강제로 대통령직에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재판은 받아오다가 최근에 15개월이란 감옥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가는 순간부터 그의 부족 출루족을 중심으로 이것은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면서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더하여 COVID-19으로 인한 록 다운으로 인해서 발생한 생계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 데모에 동참하고 이것이 마트를 습격하는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한국 기업 LG 공장은 전소되었습니다. 약국도 털려서 코비드 백신도 강도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에서는 개인적으로 백신을 사지도 말도 주사 맞지 말라고 광고를 합니다. 희생자가 21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폭동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행정도와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현정부에 대한 반란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폭동이 심하게 되자 남아공 부족간의 내전, 그리고 이로 인한 식량 문제 등에 대한 유언비어가 나돌았고 사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요긴한 교통수단인 봉고차들의 운전자가 불안을 이유로 운전을 거부하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못하고 생계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저희 교회 대부분의 교우들이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와 담당장관 그리고 도지사들이 안전하다고 담화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극렬한 폭동은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만일에 대비해서 완전 무장한 군부대가 출동하여 순찰하고 있고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거리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접종률이 예상치 보다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곧 중국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백신 접종 예약 수가 하루에 1백만이 넘었다고 신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와 금주 초까지 비가 와서 기온이 내려가 엄청 추웠습니다. 좀 강익는 계속되고 있고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빈곤의 대명사인데, 그 중에서 인재의 빈곤이 가장 심각합니다. 교회와 관련하여서 아프리카의 토속신앙이 기독교를 오염시켰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교회 건설을 위한 인재 양성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시골 교회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의 중요성, 자립을 위한 노력과 근면,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교회를 건설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은 현재 목회자를 위한 신학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타지역 아프리카에서 온 국비유학생들을 포함한 유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스텔렌보쉬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교육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양성하여 아프리카의 복음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재수 선교사는 스텔렌보쉬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케이프 타운 지역에 위치한 남아공의 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재 양성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순희 선교사는 부산대를 졸업한 후 부산시내 공립중학교에서 교사 생활 중 남아공으로 와서 수학교육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판자촌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수학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다섯 교회와 교회의 미래



나삼진 목사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사무총장)

기독교 역사 첫 600년 초대교회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섯 교회가 있었다. 먼저, 예루살렘교회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 모임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교회를 만들었다. 그 교회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고, 열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예루살렘교회를 모형으로 삼고, 이를 닮아가고자 한다.

둘째, 안디옥 교회이다.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밖에 처음으로 생긴 이방인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교회가 바나바를 사역자로 파송하였다.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목회지가 없었던 바울을 동역자로 초대하여 함께 목회했다. 여러 훌륭한 교사들과 좋은 가르침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다.

셋째, 로마교회이다. 예수 당시는 로마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다스리던 시대였고, 로마는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다. 베드로가 순교한 곳에 바티칸이 서 있다. 로마에서는 훗날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고, 여러 차례 극심한 박해가 있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어 2백 년을 생활하다가 결국 로마제국을 점령했다.

넷째, 알렉산드리아교회이다. 지금의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에 버금가는 세계 도시였는데,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고, 각 민족의 고전이 번역되어 200만 권 이상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던 문화도시였다.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로마나 안디옥과 쌍벽을 이루었고, 문화적으로는 로마보다도 우월했다. 도서관과 박물관 건설로 그 시대 최고의 문화도시가 되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최고의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말씀론을 특징으로 하는 클레멘트와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을 구가했던 그의 제자 오리겐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들은 각각 여러 권의 중요한 저술을 남겨 초대교회를 굳건히 세웠다. 교회사에서는 이들을 알렉산드리아학파라고 한다.

다섯째, 칼타고교회이다. 초대교회 시대에 특히 251년부터 419년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서 칼타고총교회의에서 성경이 확정 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이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중요 인물들이 배출되었거나 그곳에서 사역하였다. 칼타고 출신 키프리안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부유한 이교도 출신으로 40세에 개종하여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고, 평생 갈고 닦은 수사학을 버렸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감독이 되었는데, 9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칼타고에서 3세기부터 5세기 초까지 다섯 차례의 총교회의가 열렸는데, 419년 총교회의에서는 우리가 가진 성경이 확정되었을 정도로 교회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교회들이 7세기에 모두 무너지고 말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물론 이슬람의 공격이 강력했지만, 교회가 다음세대를 가르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기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600년 동안 큰 일을 했던 교회들이 지금 발자취를 감추고, 대부분 유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데 오늘의 한인교회들은 늙어가고 있다. 이민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1세대의 교회로만 머무는 교회들이 많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자녀들과 다음세대로 이어져야 한다. 교회들 마다 1세 중심에서 1.5세가 합류하고, 2세들이 합류해야 한다. 일정한 규모가 있는 교회는 영어 사역이 강화되고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인들이 중심이 되고 아시아와 다른 민족도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인교회들이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풍요로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다음세대로, 다른 민족과 아프리카 세계로 흘러가야 한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나와 가족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들 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기도, 우리의 물질과 헌신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교회도 지금은 유적으로만 남은 초대교회 다섯 교회와 같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여 열매를 맺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뉴스레터 8면으로 증면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뉴스레터가 2021년 여름호를 기해 8면으로 증면하게 되었다. 그동안 선교지 소개와 헌금 보고 및 간단한 활동을 안내해 왔는데, 요청되는 소식을 한정된 지면에 다 담기 어려워 8면으로 증면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아프리카미래재단 사역탐방을 필요시 2면으로 증면하고, 선교지 특집을 2면으로 구성하여 선교사 편지를 게재하며, AFF소식, 각 선교지 소식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간단한 생각도 보내주시면 실을 예정이다. 앞으로 미국 본부의 역할이 보다 내실있게 확대되기를 기도하며 뜻있는 분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라고 있다.

제라국제보건대 강의동 건축헌금 8월말까지 계속

제라국제보건대 강의동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헌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있어 감사하다. 이 특별모금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될 것으로 예상하여 2차 송금을 할 8월 말까지 계속할 예정인데, 뜻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미래재단 USA가 단일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특집 2-3면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잠비아의 국가 경제적 상황과 열악한 보건환경을 고려할 때 이를 업그레이드 하는 필수적인 일로 평가된다. 더구나 이 사업은 아프리카미래재단 잠비아지부가 오랫동안 진행해 온 치소모병원 사역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헌금자 명단은 10월에 간행될 소식지에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미래재단 지부 확장 계획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몇 지역에 지부 개척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 AFF의 관심과 함께 미국 본부가 미국의 광대한 지역을 다 관장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각 지역에 뜻있는 이들이 준비되면 각 지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각 지부는 초기에 한국본부의 지도와 미국본부와 협의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협력을 받아 안정을 얻게되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 시행할 수 있는 독립지부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적으로 아틀란타 지부 개척 문제를 개업의 이경호 선생이 담당하여 준비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 관심이 있는 분은 이경호 선생께 연락을 바란다. (연락처 575-528-9478)



박상은 대표, 국제보건의료학회 회장 선출

아프리카 미래재단 박상은 대표가 지난 12일 국제보건의료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되었다. 국제보건의료학회는 2013년 3월 보건학·의학·사회학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전 세계인의 건강 증진과 국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연구와 학술 활동에 힘쓰고 있다.

국제보건의료학회는 매년 대한보건협회와 공동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8월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보건의료학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사회적 목표인 '모두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UN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학술적으로 발전, 실현하기 위한 학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박상은 신임 회장은 "10주년을 앞두고 국내 회원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국제보건의료 전문가 및 NGO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국제보건의료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714-732-1484 (미국) +82)2-342-9182 (한국)

✉ aff@africaff.org

🌐 www.africaffenglish.modoo.at (영어)

🌐 www.africaff.org (한국어)

🗣️ 아프리카미래재단 📷 africafuturefoundation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송금하실 때

- 은행: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121000358
- SWIFT 코드: BOFAUS3N



선한 청지기들 2021. 3. 31 ~ 21. 6. 30 / 재정보고

GugHyun Chang, Jenny Chang, JinChul Jhung, Jee Koo Hur/Young Hwa Hur, Michelle Lim, Andrew/SoYoung Kim, Jinhee Kira, Simon Paek, Hyong Pak, Micheal Yang, Johng G. Yahng, David Yoo, 김응원/김재선 김홍식 김희집/김재숙 백형순 송영 송은석/이원희 신영애 양해종 이승숙 이준현 이홍철 임우성 허철신 황길남 새벽이슬교회 OC살롬교회 OC한인교회 북가주Joyful교회 Livingstone Home Health Omega Inc.

* 이름이 누락되신 경우, AFF 사무실(714-732-148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단위: \$)	지출	
전기이월	105,713.65	사무용품비	199.80
3월 현금(추가)	620.00	봉투 인쇄비	650.47
4월 현금	5,555.00	회보 인쇄비/발송비	780.06
5월 현금	11,950.00	Zera보건대 건축현금(1차)	50,000.00
6월 현금	4,230.00	세무보고/등록 및 CPA 경비	750.00
분기 수입	22,355.00	은행수수료	45.00
총 수입	128,068.65	PO Box 연간 사용료	166.00
		지출총액	52,591.33
		잔액(차분기 이월)	75,477.32